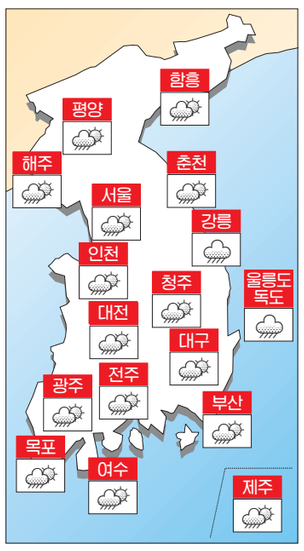
비온 뒤 다시 '쌀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 때 비가 오겠다.

11월 11일 (음 9월 21일) 날씨

광 주	9~13℃
목 포	10~13℃
여 수	12~14℃
완 도	11~13℃
구 례	6~14℃
해 남	7~14℃
장 흥	7~14℃
고 흥	10~14℃
순 천	6~13℃
영 광	9~14℃
진 도	9~15℃
전 주	8~15℃
남 원	6~12℃
정 읍	8~11℃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2.0~4.0m
서해남부 먼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먼바다
북서~북동풍
파고 2.0~4.0m

▲해뜸 07:03 ▲해짐 17:30
▲달뜸 22:40 ▲달짐 12:39

목포 밀물 05:28 18:35 썰물 10:45 --:-- 여수 밀물 00:03 13:11 썰물 06:20 19:3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날 씨						
최저/최고	2/13	6/14	6/12	4/11	1/10	1/11

광주·전남 주말·휴일 쌀쌀

주말인 11일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 광주·전남에 5~20㎜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비는 이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낮쯤 갤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 휴일인 12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7도 떨어진 영상 2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도 13도로 쌀쌀하겠다.

전남 대부분 지역도 아침 기온이 2~3도 수준으로 낮아지겠고, 산간 인근 마을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 온도가 갑자기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감기 등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5·18 유공자 분신기도

50대, 보훈처장 면담 거부당하자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1명이 5·18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보훈처 앞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10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5·18 기타희생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일·이하 대책위) 회원 문종연(57)씨가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문씨는 소방대원과 경찰에 의해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회원 97명은 전날 오후 버스 5대에 나눠타고 상경해 집회를 열고 국가보훈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보훈처가 청장 부재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문씨가 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에 참가한 회원 중 4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

'5·18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이 조직한 대책위는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구속·구금된 사람들 중 기타 1~2등급 보상 판정을 받은 1천2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상위 보상자들에 비해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아내살해 전 靑 행정관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여자문제로 인해 처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고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배신감을 줬으며 아직까지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3월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모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모(35)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새희망 복지원' 화재 참사 피해 왜 컸나

행정당국 무관심이 화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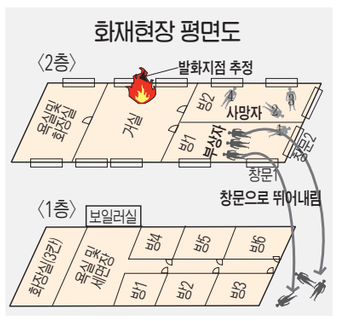
불법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감독 전무
'조립식패널' 유독가스로 인명피해 늘어
경찰, 보름전 퇴사 40대 방화 추정 수사

10일 새벽 7명의 사상자를 낸 '새 희망복지 선교원' 화재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당국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아비규환의 현장 = 불이 난 쉼터 B동 2층은 뼈대만 앙상히 남은 채 모두 불에 타 화재 당시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1층도 수용자들이 불을 피해 급히 달아나면서 내버린 가재도구와 검게 그을린 이불이 널려있었다. 불을 피해 2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병오(48)씨는 "'불이야'하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시뻘건 불길이 앞을 가로 막고 있었다"면서 "살기 위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다른 동(쉼터 A·C동)에 있어 화를 면했던 수용자들은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숨진 동료의 모습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했다.



◇인명 피해 왜 컸나?=불이 난 쉼터 B동은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 건물에다 소방시설이 턱없이 부족, 인명피해를 키웠다.

조립식 패널의 경우 벽 내부가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으로 이뤄진데다 불에 타면서 성인 남성이 한 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게 되는 다이옥신·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광주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패널로 된 구조물은 밖에서 철판 안쪽으로 불이 붙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고, 일단 불이 붙으면 힘없이 무너져 내려 가까이 접근하기도 힘들다"면서 "패널로 만들어진 구조물 2층에서 사람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선교원의 열악한 소방설비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불이 난 쉼터 B동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소방서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스프링클러나 경보장치 등이 전혀 없었고, 인근 다른 건물(쉼터 A·C동)에만 소화기 2대가 비치돼 있었다.

◇방화인가 사고인가?=경찰과 소방서 모두 화재 원인이 방화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 처음으로 난 지점은 쉼터 B동 2층 욕실.

하지만, 인근에서 휘발유통이나 발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상자와 목격자들 일부는 함께 생활하던 김모(40)씨가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많이 마시던 김씨가 보름 전 원장에게 지적당한 뒤 퇴사를 당했으며, 2~3일 전 되돌아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방화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당국의 관리소홀=화재가 발생한 '새 희망 복지 선교원'은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랑아·노숙자 수용시설'이 아닌 '개인 집단 거주지' 형태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관할 구청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곳 원생들의 생활 실태 파악 점검이 전부였다.

선교원 내 숙소 등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었지만, 남구청은 지난 2003년 12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을뿐 이후 강제철거와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수용자들을 옮길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남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갈 곳 없는 이들이 관리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내고 사는 '달 방' 개념의 집단 거주촌으로 보면 된다"며 "따라서 구청이 허가를 내 주거나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민정·이승배기자 viola@kwangju.co.kr

10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새 희망복지선교원'내 임시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영근(70)씨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시 남부소방서 제공〉

노숙자 등 52명 거주한 비인가시설

'새희망 복지원' 어떤 곳

10일 새벽 대형 참사가 발생한 광주시 남구 송하동 541-1번지 '새 희망 복지 선교원'은 지난 1983년 장모(49)씨가 세운 '갈릴리 갱생 복지회'가 전신이다.

연고가 없는 형기 종료 출소자, 노숙자 등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한 거주촌으로 세워졌다.

지난 2003년에는 설립자 장씨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100여명의 수용자들의 최저 생계비와 보험금 등을 5년간 6억여원을 착복해 구속되는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류모(48) 목사가 관리·운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류 목사를 비롯한 전도사 장모(58)씨·장로·권사 등 4명이 원생들을 관리해오고 있다.

선교원은 ▲교회당 건물 1동 ▲식당 1동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2층짜리 조립식 판넬 건물 3개동 ▲컨테이너 박스 26개동(1인1실) 건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다.

이곳에서 노숙자와 정신지체인 등 52명이 거주해 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비인가 복지시설 광주 9·전남 35곳

정부 지원 못받아 시설 열악…대형사고 위험 상존

광주·전남의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은 44곳(광주 9곳, 전남 35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은 광주에만 50~60곳의 비인가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가시설의 수용인원이 수요 보다 크게 적어 일부 사람들은 비인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 또 인가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 수용하기 때문에 자격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비인가 시설로 몰리고 있다.

비인가 시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가 시설에 비해 사정이 열악하다.

대부분 무허가 조립식 건물로, 소방서의 소방시설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돼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배영복 사무처장은 "광주에서 비인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노인·부랑자·아동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개구쟁이들의 한마당 축제

10일 오후 광주 운리초등학교(교장 김병태) 강당에서 열린 '제4회 운리축제'에서 1학년 학생들이 '어화둥둥 내사랑'이라는 음악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사직 상실 장혜옥 위원장 교육부, 대표성 인정 않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달초로 예정된 제13대 전교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장 위원장의 출마가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며 "장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연 퇴직'이 됐으므로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들 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순천 80대 노인 화재 질식사

혼자 살고 있던 80대 노인이 화재로 인한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10일 순천소방서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56분께 순천시 김모(여·86)씨의 집에서 불이나 내부 7평을 모두 태워 약 5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던 김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불꽃이 주변 땔감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고의 사고로 보험금 노린 대리운전 기사 6명 검거

여수경찰은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고모(28)씨 등 대리 운전기사 6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1시께 여수시 여서동 모 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윤모(여·49)씨가 운전한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윤씨를 협박,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8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외에 다른 5명의 대리기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1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1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대리운전 회사 소속인 이들은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이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들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재래시장 돌며 노인 상대 사기행각

쌍나팔

○…순천경찰은 10일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판단력이 흐른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속칭 '네다바이'를 한 혐의(사기)로 정모(5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2일 순천시 남정동 남부시장에서 탁모(70)씨에게 접근해 화투 6매 중 1장을 뽑아 알아맞히면 내기 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여 탁씨로부터 모두 1천80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

○…정씨 등은 자신들의 가방에 미리 넣어 둔 3천만원의 돈뭉치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인했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가로챘다고.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